

아시아 최대 민주주의 네트워크 10월 출범

26개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한국에 사무국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아시아 역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아시아 최대의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결성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범아시아 시민단체 연합인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ADN·Asia Democracy Network)' 결성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DN에는 아시아 자유선거를 위한 네트워크(ANFREL), 동남아언론연

합(SEAPA), 포퓰아시아 등 해외에 본부를 둔 15개 내외의 기존 네트워크 조직을 포함, 26개국 10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태국 방콕에 사무국을 둔 ANFREL은 아시아 지역에서 공정선거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연합이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15개국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의 참여연대도 이 네트워크 소속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포퓰아시아는 필리핀·인

도네시아 등 17개국 47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아시아 시민단체 네트워크이다. 언론의 자유 보장을 기치로 내건 SEAPA는 말레이시아 등 4개국 6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ADN은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아시아의 정치적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로 결성이 추진됐다.

작년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행동(WMD)'에 참가한 각국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ADN 발족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올해 4월 몽골 울란바토르 회의에서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임시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애초 몽골에서 ADN 출범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몽골 임시운영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협이 있고 시민사회가 발달한 한국에 사무국을 두고 출범식을 열기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식은 오는 10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출범식 준비를 담당할 임시사무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꾸려졌으며, 한국인권재단·동아시아연구

원·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도 ADN 준비과정에 참여한다.

ADN은 정부를 상대로 한 민주주의의 캠페인, 민주주의의 활동 재정 지원, 민주주의 관련 조사 연구, 활동가 리더십 역량 강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몽골에서 열린 민주주의공동체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지역 26개국 외무장관들도 ADN 결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ADN은 아시아 시민단체를 엮는 우산과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협뉴스



아라온호 동시베리아해 빙상 발견

해양수산부는 해양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북극해를 탐사한 결과 제4기 빙하기(260만년 전~1만년 전)에 동시베리아해에 존재한 빙상(icesheet)의 증거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빙상이란 대륙을 광범위하게 덮은 빙하로 면적이 5만km²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이 발견한 동시베리아해의 빙상 두께는 그동안 북극해 연안에서 발견된 빙상(800~1000m)보다 두꺼운 1200m에 달한다. 북극해를 항행 중인 아라온호.

(해양수산부 제공)

개성공단 존폐 여부 이번주 최대 고비

14일 실무회담 남북 모두 정치적 부담

이달내 합의·9월 재가동 가능성 높아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는 이번 주는 개성공단의 존폐를 가늠하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4일 열릴 7차회담은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짓는 회담으로 평가받고 있다. 7차회담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남북은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북한이 최근 적극적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정상화 가능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책임 문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공단가동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책 문제와 책임의 주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태도가 전향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개개의 사안이나 핵심 사안에서는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실무회담 참석 대표단 및 방북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북한은 14일 회담을 앞두고 연일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도

를 내보내고 한미 정례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눈앞에 다가온 현재까지 격한 대응을 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또 대북 자원물자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우리 민간단체 2곳의 방북을 초청하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남북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이 회담에서 한 걸음씩 양보한다면 개성

공단 문제가 7차회담 혹은 늦어도 이달 내에 합의되고 9월 중에 재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8월 중 합의 후 9월 재가동' 가능성을 점치면서 "남북이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이 12일 내놓은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문가 10명 중 7명꼴로 개성공단을 무조건 또는 중단 사태 이전의 가동 여건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연구원, 교수, 남북 경험 기업 대표 등 북한 전문가 105명 중 71.4%(75명)가 이같이 답했다.

연협뉴스

北 '유일사상 10대 원칙' 39년만에 개정 김정은 권력 세습 정당화·체제 강화

공산주의 표현 삭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 역할을 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주민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이던 1974년 4월 김일성 주석의 신임을 얻고자 만든 이 원칙은 북한 주민들이 최고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0조 65항으로 이뤄졌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올해 6월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정은 시대 들어 김정일 위원장을 김 주석과 동급으로 격상한 북한은 이번에 개정된 원칙에서 '김일성'이라는 문구를 '김일성·김정일'로 바꾸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했다. 제7조에서는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제도(勞道)'를 가장 앞에 내세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10대 원칙에서는 각각 제1조 3항과 같은 조 4항에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이밖에 개정 원칙 서문에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과 자립경제를 가진 위력을 떨치게 됐다'고 적시한 것도 작년 4월 개정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연협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한국인 사망

사망률 사스의 5배

오병윤 의원 밝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오후 2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야텐 알루미눔 제철소에서 일하던 배관공 김모(54)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약 10일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현지 병원에 다니다가 증세가 악화돼 급히 귀국하려 했지만 귀국 당일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공항에서 바로 현지 주베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지난 2012년 9월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로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사스의 5배인 56%에 달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최근까지 모두 94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50%인 46명이 사망했다. 최근엔 유럽까지 확산돼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감염 확인자 중 70%가 넘는 67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오 의원은 "현지에서 보내온 문자를 살펴보면 김씨 사망 과정에서 가족에서 환자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사망사건 이후엔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현재 현지에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사망한 김씨와 함께 귀국하려던 노동자 3명도 이미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국내 병원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풍 '우투르' 필리핀 상륙

1명 숨지고 45명 실종

제11호 태풍 '우투르'(Utor)가 12일 필리핀 동부해안에 상륙해 최소한

1명이 숨지고 45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필리핀 방재당국은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우투르가 휩쓸고 간 루손섬 중부의 산악지역 방케트 주(州)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0대 남자가 사망했다고 전했다.

연협뉴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흥증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용화·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인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인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 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월 1,600만)
-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4억
-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월810만)
-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월430만)

대지/전답

- ▷ 신기동(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매 3억
- ▷ 광산구 신창동 생산농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10억(펜션용지,귀농지,전원주택 적합)
-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신축주택 포함)
-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펜션,관광농원등 다양)
- ▷ 여수 들산읍 전 1,874㎡ 매 2억(비디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